믿음과 희망주는 고성군의회

2025. 12. 19.(금) 10:00
제3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당항항 활성화를 위한 '당항밤바다' 추진 방안 -

고성군의회
(우정욱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부의장 우정욱입니다.

연말을 앞둔 12월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성군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모든 가정에
따뜻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켜낸 역사의 혼이 깃든 당항포와
고성 미래 성장의 꿈이 있는 당항항 활성화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성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항포 관광단지 활성화, 관광·문화 기반 확충,
지역 경쟁력 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역구인 회화면을 지켜보며,
당항항이 지닌 아름다운 자연경관, 관광단지 접근성,
주변 상권 연계성 등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현재 당항항의 강점이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는
횟집 등 시설물의 노후화, 여행 동선 단절,
다양한 콘텐츠 부족, 관광객 체류 공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항항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 이 아니라
'머무르고 싶은 곳', '걸어보고 싶은 곳',
'마음의 위로를 받는 곳', '소망을 기원하는 곳',
'맛집 하면 떠오르는 곳' 으로 만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항항이 고성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후한 횟집 단지의 전면 정비와 경쟁력 강화입니다.
많은 분이 공감하시듯 당항항 횟집들은
건축물 노후화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상권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으며,
이는 당항항 전체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고성읍 철뚝거리, 마산어시장 장어거리 등
인근 상권 재생 사례를 참고하여
횟집 단지 전면 재정비, 공영주차장 조성,
휴식 공간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만약 전면 재조성이 쉽지 않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어촌뉴딜사업 후속 예산 등
가용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외부 도색 정비, 노후 화장실 개선,

간판·외관 디자인 일원화 정비,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횟집 단지 정비는 당항항 경제 활력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둘째, 당항항 광장을 활용한 '포차 거리 조성'과
'문화 공연 활성화' 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조성된 당항항 광장은
고성군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자산입니다.
여수 낭만포차거리, 부산 영도 포차거리처럼
바닷가 특성을 살린 포차 특화 거리는
이미 많은 도시에서 검증된 관광 모델입니다.

당항항 역시 탁월한 바다 조망, 넓은 광장,
관광단지와의 연계성을 활용해
포차거리를 조성한다면,
야간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유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광장을 활용하여 지역 예술인 공연,
세계공룡엑스포 콘텐츠와 연계한 특별 공연,
주말·야간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병행하면,
당항항은 먹거리와 공연, 야경을 모두 갖춘
복합 관광 명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남파랑길과 연계한 오토캠핑장 조성입니다.
전국적인 도보 여행지인 남파랑길 12코스에는
당항만 둘레길에서 배둔 시외버스정류장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도 노선으로 인해
당항포 관광단지를 지나 '바다의 문'으로 이어지는
방문객 동선이 크게 줄어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바다의 문 주변 유휴 주차장을 차박이 가능한
오토캠핑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곳은 주차장과 화장실이 이미 갖춰져 있어
큰 추가 시설 없이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시범 운영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서
당항항을 알리고 방문객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남파랑길 도보 여행객에게
공룡의 문을 통해 바다의 문으로 나가는
동선 개방을 통해 자연스럽게 당항포 관광단지에서
당항만 둘레길 및 해안데크를 거쳐서
횟집 단지와 포차거리로 이동하도록
동선을 재설계하면, 당항항 일대 전체가
살아나는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방문객이 다시 찾도록
지역의 숨은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항항 차박 해맞이 행사’,
‘차박 SNS 인증 행사’,
‘새해 소망이 이루어지는 당항항’ 등의 콘텐츠로
당항항의 매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항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투자 영역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분명합니다.
당항항 활성화의 출발점은
노후 횟집 정비 또는 새로운 횟집 단지 조성이며,
이를 기반으로 포차 거리 및 문화 공연 추진,
남파랑길 연계가 이루어질 때
당항항은 고성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당항밤바다’가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고성 대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질적인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